

사노피 파스퇴르(주), 9년째 독감예방접종 진행으로 총 42,100명의 노숙인 및 쪽방 주민 겨울철 건강 관리 지원

- *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독감예방접종 활동 지속... 9년 간 총 42,100명 지원
- * 24일(목)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 행사에는 사노피 파스퇴르 임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
- * 오는 11월 15일(금)까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3,700명 대상 독감예방접종 실시

2019년 10월 24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주) (대표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는 24일(목) 서울역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서울시, 서울의료원 등 8개 기관과 함께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독감예방접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대표 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헬핑핸즈(Helping Hands)'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울의료원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 △따스한채움터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4일(목)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5일(금)까지 9개 장소에서 총 1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사노피 파스퇴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를 서울의료원 소속 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접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는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를 비롯하여 사노피 파스퇴르 임직원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문진표 작성, 점심 배식 등 접종 행사 전반을 도왔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2011년부터 헬핑핸즈(Helping Hands) 활동을 통해 매년 독감예방접종 시기인 10~11월,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이어오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올해 서울시에 기부한 독감 백신 3,700도즈와 부산시에 기부한 300도즈를 포함해, 2011년부터 9년 간 총 42,100도즈 상당의 독감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사노피 파스퇴르 대표는 “매년 독감예방접종 시기면 의료취약계층 시민들이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라는 염원 하나로 함께 해준 많은 파트너 기관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9년동안 헬핑핸즈는 노숙인들의 겨울철 건강뿐 아닌 공공 열었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고, 나아가 노숙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난 해 한국자원봉사문화 등이 진행한 ‘헬핑핸즈 프로그램의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평가’에서 지난 8년 동안의 노숙인 독감예방접종 활동으로 노숙인들의 신체·심리·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받아, 지난 4월 서울시장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자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인 ‘헬핑핸즈’를 통해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 프로그램과 함께 노숙인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노숙인들의 취약한 의류 수급 실태를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헌 옷 모으기 행사 ‘더 빅드림(2012~2014년)’, 노숙인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인 ‘빅프렌즈(2015~2016년)’, 거리의 천사들 팀과 함께한 거리 노숙인 대상 ‘혹한기 야간 배식 활동(2012~2013년)’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근성 및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과 캡션]

사진	캡션
	<p>사노피 파스퇴르(주)는 24 일(목)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5일(금)까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한다.</p> <p>사진은 사노피 파스퇴르(주)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가 노숙인 예방접종행사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돕고있는 모습.</p>
	<p>사노피 파스퇴르(주)는 24 일(목)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5일(금)까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한다.</p> <p>사진은 사노피 파스퇴르(주) 임직원들이 독감 백신 접종 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진 작성 및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p>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헬핑핸즈(Helping Hands)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전문기업으로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헬핑핸즈(Helping Hands)’를 진행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헬핑핸즈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대상 독감 예방 백신 접종 지원 △노숙인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 참여 의류기증 행사 진행 △노숙인의 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빅프렌즈(The Big Friends)’에 건강 지원 부문으로 참여 △노숙인 잡지 판매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100인 미만의 도서벽지 초등학교 대상 체육특별활동 및 건강교육을 지원하는 ‘작은 학교 건강 증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바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건강 지원,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